참 좋은 선물로부터의 자유

(레25:1~55)

1.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3.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4.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6.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7.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8.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9.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10.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우리가 함께 읽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 중심으로 <참 좋은 선물로부터의 자유>라는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참 좋은 선물로부터의 자유'

참 좋은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유는 참 좋은 선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서비스를 받았는데 인터넷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TV를 켜고 소장용 영화 두 편을 넣으시고 틀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기사가 간 뒤에 영화를 봤습니다. 미국 영화인데 앞부분만 조금 보았어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재혼한 엄마를 따라갑니다. 새 아빠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생부는 혼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딸의 생일날이 다가오자 선물을 고민하다가 인도인이 주인인 전자제품 상점을 몇날며칠을 들락거리다가 무리를 해서 콤팩트오디오를 사서 생일날 딸을 찾아갑니다. 어마어마한 큰 정원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음악이 들리고 온갖 음식이 다 장만이 되고 큰 파티가 열렸습니다. 딸을 찾아서 그 콤팩트오디오를 주니까 아빠를 껴안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와-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돌아보니 새 아빠가 새까만 흑마를 장식을 해서 생일 선물로 끌고 나옵니다. 그 때에 이 딸이 생부로부터 받은 그 콤팩트오디오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다시피 하고 말을 타러 갑니다. 콤팩트오디오를 바라보는 생부의 마음과 얼굴표정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생부의 입장에서 새 아빠가 사준 멋진 생일 선물을 향해서 딸이 달려가는 이 상황, 그리고는 새 아빠가 와서 이 생부에게 같이 즐기시라고 하자 이 생부는 이제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새 아빠와 전처와 딸은 셋이 돌아서서 같이 가는데 혼자 우두커니 콤팩트오디오를 내려다보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좋게 느낄 수밖에 없는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선물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기를 바라시는 이상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그 딸이 멋진 말을 선물로 받았을 때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좋은 것을 주시고는 그 좋은 선물을 땅바닥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선민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 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지니고 소유하고 향유하면 좋겠는데, 땅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선민의 자유라니 이것이 바람직한 자유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년은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 전체가 희년의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한 마디로 안식년은 6년 동안은 밭에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로 잘 먹고 살면 되는데 칠년 째가 되면 밭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밭을 쉬게 하면 나도 할 일이 없어집니다. 초점은 내가 노동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땅을 쉬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일곱 안식년이 일곱 번으로 사십구 년째가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의 일 년을 또 쉬고, 오십 년째의 해를 그렇게 쉬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내가 살다보니 돈이 궁해서 토지를 팔았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토지를 산 사람이 내게 돌려줘야 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샀다고 해도 돌려줘야 합니다. 내가 빚을 졌다고 해도 희년이 되면 빚이 탕감이 됩니다. 내가 채권자일 경우에 희년이 되도록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아도 그 빚을 탕감해줘야 합니다. 참 입장이 서로

곤란합니다. 탕감을 받는 입장과 토지를 돌려받는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토지를 돌려주고 빚을 탕감해줘야 하는 쪽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종으로 팔려서 남의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어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냥 돌려보내서도 안 돼요. 그가 먹고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장만을 해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말대로 지켜서 행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기업들이 1년 동안 쉽니다. 돌아가면서 어느 직원이 안식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대로라면 토지 즉 공장이 쉬어버립니다. 일 년 동안 공장을 쉬고 희년 같은 경우에는 이년을 연거푸 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애석한 것은 성경 내에서도 이 안식년과 희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단 한 마디도 없습니다. 희년의 단어가 사용되는 본문들은 있지만 그렇게 사용되더라도 희년이 뜻하는바 해방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희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도 그것이 지켜졌다고 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희년과 안식년 제도를 왜 언급하셨을까요? 이것은 3,500년 전에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선민이 누리는 자유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우리가 발로 딛고 사는 이 땅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레위기 전체가 거룩함을 향하고 거룩함을 표현하고 모든 제사가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고 거룩함을 획득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셨는데, 그런 삶과 거룩함이 성취된 상태가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선민은 자유한 사람인데 이 자유가 언뜻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에 좋게 느껴지는 선물을 주시고는 그 선물을 땅바닥에 내려놓게 하는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치고 자기가 준 선물을 싫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선물이 변질된 뇌물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기를 바라서 뇌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면서 내가 지극히 선물을 싫어하기를 원하시고 선물을 싫어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십니다.
사전에 보면 '자유'는 '얽매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법률적인 정의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즉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라는 것이 자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이사를 간다고 해서 누가 말리겠습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지만, 신앙에서 보고 있는 자유는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왜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얽매여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얽매여 있는 마음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마음 자체가 얽매여 있느냐 아니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큰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과시하기에도 좋고 생활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런 편의성에 매여 있는 마음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왜 큰 집에 매였느냐를 보는 겁니다. 큰 집이 좋다고 마음이 매여 있는데 어떻게 자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4: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얽매여 있는 욕구대로 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자유라고 하고, 기독교는 마음 자체가 얽매여 있는 것을 문제시하는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은 얽매임이 운명적이라는 애깁니다. 얽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워진 채로 만드셔서 채움의 욕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채웁니까?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채워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내 가족인 남편, 아내, 부모님, 자식, 형제들, 좋은 친구와 애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과 돈, 인기, 명예, 권력, 건강함, 아름다운 미모, 자동차, 아파트, 명품 백 등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은 것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우리는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의 지성소의 첫 번째 사랑의 자리에 이름을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얽매임이 운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은 존재의 필연적인 요구로 잘못도 아니고 이렇게 얽매임이 운명적인데 어떻게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에서 표방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는 자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돈에 얽매여 있으면서 돈에 얽매인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사업을 크게 벌인다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마음이 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데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점은 많은 사람들은 괴로워하면서도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데,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에 얽매이면 거기에서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은 포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희년에 자유를 공포하라"고 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희년의 핵심 메시지는 '자유를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

든 사람들이 좋게 여길 수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들 중에 하나로 끼어들어 오셨습니다. '끼어들었다'는 말이 하나님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많은 가운데로 당신 스스로가 하나의 아이템처럼 들어오신 것입니다. 선민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좋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첫 사랑의 자리인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는 거룩과 통해있습니다. 거룩은 더 좋은 방향으로 구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의 좋을 수가 없는 최종적인 좋음에 이른 상태가 거룩입니다. 좋은 것을 향해서 계속 구분되어 가는 것이 거룩을 향한 걸음이라고 한다면, 거룩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만큼 최종적으로 좋은 것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자유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을 만큼 최종적인 좋은 것에 얽매이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는데 독자를 사랑하고 독자로부터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세에 얻은 이 아들은 금지옥엽입니다. 다이아몬드에 비교를 하겠습니까? 주신 이유는 맨 처음에 말했던 영화장면처럼 콤팩트오디오를 땅에 내려놓듯이 버리라는 것이고, 그것을 미워하라는 것이고 싫어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저절로 당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저절로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절로 좋아하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의 자리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하나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만 들어와야 충만함이 이루어지므로 하나 밖에는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모셔 들이려면 독자 이삭을 미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눅14: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이 목숨인데 그것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을 좇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 좋은 선물들을 다 주셔놓고는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선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은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빠에게로 마음이 가고 아빠를 선택하려면 너희에게 준 모든 선물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를 수확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잘 누리기 위해서 감사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 수확을 했는데 노동을 쉬는 절기로 지내라는 것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땅에 일 년 동안 농사짓지 말라”는 말씀에서 ‘땅’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자유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일 년 동안 농사짓지 말고 그 땅에서 저절로 자란 것들이나 따먹고, 곳간에 저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놔두라는 것인데 바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 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다른 남자를 쉽게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유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얽매이기 위해서 자유 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선물을 미워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바람둥이인데, 그 선물인 남편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얽매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이 엄마라면 자유 엄마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선물에서 얽매이지 말고 마음에서 미워해야 합니다. 자식은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자식을 미워하며 다른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얽매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자리는 누가 들어오든지 하나의 대상 밖에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민이 엄마가 되면 자유 엄마가 되고, 선민이 사업을 하면 자유 사업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콤팩트오디오처럼 땅에 버려야 하고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선물에 얽매이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을 만큼 최종적으로 좋은 선물에 얽매이기 위해서입니다. 콤팩트오디오를 버리고 더 좋은 흑마를 향해 뛰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선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다 콤팩트오디오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끼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주시지 말고 하나님만 갖는 상태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질문하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생래적 체질입니다. 인격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신 다음에 그것들을 미워해야 하고, 사도 바울은 빌3:8절에서 그동안 좋았던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배설물’은 빨리 내보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하신 ‘미워한다.’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의 땅을 산 자는 땅을 돌려주고 땅이 없어서 결핍에 찌든 자들은 땅을 돌려받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시에 느낄 수 있는 체감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희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년의 모든 정신이 예수님의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눅4: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예수님의 사역이 희년의 정신을 다 포함하고 요8:36절에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하십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항상 하늘에서 관계하시고 계시는데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위치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 얽매이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최종적으로 좋은 것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마치 거룩이 더 이상 좋다고 구분될 수 없을 만큼 최종적으로 좋은 것에 도달함인 것처럼, 자유는 최종적으로 좋은 대상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좋은 것으로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이 땅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면서,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미워하고 마음에서 내보내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 들이는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민에게 요구되는 자유는 곧 자유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함에 따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얽매이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미워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잡아 끌만큼 좋고 중요한 모든 대상과 일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일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버린 이 세상 것들과 세상일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참 좋은 선물로부터의 자유'의 말씀으로 기독교인의 복음적 자유, 신앙적 자유의 핵심을 내 것으로 삼고 진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마음이 끌리는 모든 좋은 일들, 중요한 일들, 급박한 일들에 대해 죽게 하시고 그것들을 미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유일하게 얽매이는 처소를 발견하는 참다운 선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